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2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8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7 장 “주여 우리 무리를” (새 75)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4 번 잠언 (Proverbs) 3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석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Hebrews) 11:17-19	양용일 집사
설 교 Sermon	“시험을 받을 때에” (When God Teste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42 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54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죄악과 불신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를 행하는 자가 되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7:10, 약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한글개역 히11:17)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NIV Hebrew 11: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3 (주일)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8/28 (금)	8/29 (토)
	삼상15	삼상16	삼상17	삼상18	삼상19	삼상20	삼상21,22
본문	롬13	롬14	롬15	롬16	고전1	고전2	고전3
	렘52	애1	애2	애3	애4	애5	겔1
	시31	시32	시33	시34	시35	시36	시3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8/26수 오후7:30)	“나는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나니” (민 23:18-26)
토요 새벽기도회 (8/29토 오전6:30)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 51:12)

지난 주일(8/16) 말씀

“믿음은 죽음으로 증명됩니다” (히 11:13-16)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대개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다 보니, '믿음으로 죽으라'는 말은 사뭇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지만, 동시에 믿음은 죽음으로도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11:13)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1)첫째, **죽음 너머를 바라본다는** 의미이며(히11:13), 2)둘째,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단련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이며, 3)셋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히11:1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장차)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에, 반드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렘30:22)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며, 장차 우리의 죽음으로도 믿음이 증명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